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전서 1:2-3

“미원주민들은 1492년에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터틀아일랜드(북미) 땅이 미국으로 불리기 전부터 미국 문화에 공헌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래리 젠트 목사 — 래리 젠트(Larry Jent) 목사 — 버지니아주 그레이스하트우드연합감리교회 담임. 버지니아연회미원주민사역 위원장.

“무엇보다도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셰리 왁(Sherry Wack), 전 동펜실베이니아연회

미원주민사역위원회 공동 위원장.

나바호족 출신으로 몬태나주 브라우닝의 블랙피트연합감리교구(Blackfeet UMC)의 담임인 캘빈 힐牧사는 나바호족은 그들의 언어, 문화, 땅을 빼앗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그들의 정체성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며 비극적이게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합감리교회로의 부르심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 테리 리온(Terri Leone), 정신과 전문간호사, 뉴저지주 매디슨의 드류 신학교 3학년 학생.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전시회 ‘이 땅은 우리를 고향이라 부른다: 남동부 고향과 원주민의 관계’의 주제는 조상들의 땅과 미원주민의 개인적, 집단적 관계입니다.

이 전시회는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와 교단의 미원주민 종합 계획이 협력하여 개최합니다.



특별선교주일

미원주민선교주일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기

오 늘은 미원주민선교주일이며, 교단에 속한 모든 교회가 협력하여 미원주민들을 위한 연합감리교회의 사역을 후원하는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지키는 6개의 특별선교헌금의 하나로, 미원주민 목회자, 교회, 신학생을 준비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어, 그들이 미원주민 문화 전통을 기리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합니다. 헌금의 절반은 우리 연회와 지역의 사역에 사용되며, 나머지 절반은 전국 단위의 연합감리교회 미원주민 사역을 후원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관점을 갖게 되고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섬김의 리더십, 지역 사회 구축 사업 및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활기찬 사역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중요 사역들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힘을 얻어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특별선교주일 예물은 변화를 만드는 지역 사회에 투자되어 지도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평화와 정의의 사역을 후원합니다. 공동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이며 모든 문화, 언어, 전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미원주민선교주일 헌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된 원주민들에게 미치는 사랑의 선포를 기립니다.

후원 방법:

체크 메모란에 “미원주민선교주일”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 UMC.org/SSGive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린 가슴. 열린 마음. 열린 모.
한인연합감리교회®